



# 뜨락<sup>N</sup>



18호

경기도외국어고등학교 신문 2022.01.06

발행처 : 경기도외국어고등학교  
기획 : 지도교사 이기찬, 부장 양시연, 이시현  
취재 : 양시연, 이시현 외 12인  
편집 : 양시연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105번길30(고천동)  
전화번호 : 031-361-0500  
팩스번호 : 031-361-0598

## GAFL, A World Class Institution

### Contents

- 2 인터뷰(김경아 선생님, 전교회장, 학생행정위원회, 학생사법위원회, 디타후)
- 8 다같이 봄을 만끽하는 경기도외고의 벚꽃축제
- 9 코로나와 비를 뚫고 진행된 경기도외고의 체육대회!
- 9 경기도외고의 수학 생각 펼치기 대회에서 수학적 교양을 기르다!
- 10 학생, 선생님 앙케이트
- 14 코로나바이러스의 원인과 대처법
- 15 부스터 샷, 지금 당장 필요할까?
- 16 코로나, 그리고 함께
- 17 메타버스란? 코로나19 상황 속 메타버스의 활용
- 18 비대면 교육, 과연 효과적일까?
- 19 대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배민의 성공 신화
- 20 2021년 개최된 도쿄올림픽, 과연 성패는?
- 21 도쿄올림픽은 진정 친환경 올림픽인가
- 22 고령 건강, 이제부터 실버 푸드가 책임진다!
- 23 삼성전자, 겨울은 오고 있나?
- 24 일본인의 죽음 준비, '종활(終活)'
- 26 언론중재법, 가짜뉴스의 종말인가 민주주의의 후퇴인가
- 27 언론은 왜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가
- 28 Stop Asian Hate, 우리가 해야 할 일은?
- 29 미국-사우디 관계의 악화
- 30 낯설지 않은 미얀마의 싸움
- 31 중국의 게임, 연예계 규제 ... 제2의 문화대혁명



# 우리 학교와 함께 걸어오신 김경아 선생님을 만나다!

우리 학교에서 1기부터 중국어를 가르치시는 김경아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이 중국어를 가르치 시기로 선택한 계기부터 면접관으로 계시면서 있었던 일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까지 모두 다 질문해보았다.



**Q. 어떤 계기로 중국어에 관심을 갖고 중국어 선생님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90년대 초 중반에 중국어 수교가 이루어지고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을 때가 선생님이 대학에 과를 정해야 할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어학에 관심이 많아서 어학 분야에 진출할 생각이 있었고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한자를 많이 접했기에 중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고려해보았어요. 중국이 새롭게 뜨는 공산당 국가이고 중국이 새롭게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는 나라라서 중국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앞으로는 중국어가 유망할 것이다.”라고 가이드를 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중국어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Q.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학교와 경기외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학교가 외고라는 점이지요. 외고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전공으로 배우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우리 학교가 기숙사 학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랑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은 기숙학교에서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선배 후배 관계와 사제시간의 관계도 굉장히 끈끈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좀 뜸하긴 하지만 졸업생들이 계속해서 선생님,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1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아직도 교류하고 있는 점은 우리 학교의 확실한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Q. 경기외고에 1기부터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A.** 캄보디아로 GVT를 갔는데 도착했을 때가 밤 9시 정도였어요. 캄보디아에 들어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해서 한국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서 캄보디아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입국 심사는 심사원들이 “너네 이거 비자 잘못됐다 못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희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거다”라고 말했더니 심사원들이 “비자에 도장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통역을 해줘서 선생님도 속 시원하게 문제를 이해했고 그 다음에 같이 가셨던 대교 인솔자분이 거기서 발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그래도 3시간 만에 밤 12시가 넘어서 드디어 캄보디아 공항에 나왔어요. 그런데 옆친데 덮친 격으로 학생의 캐리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입국했을 때 아찔했던 기억이 나네요.

**Q. 이번 18기를 뽑을 때 면접 뽑는 면접 때 면접관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았던 학생이나 일화가 있으셨나요?**

**A.**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어떤 학생의 자소서에서 ‘랩을 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랩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자신감이 필요하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어요. 선생님들끼리 시간이 남으면 랩을 시켜보려고 합의를 한 후 면접을 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학생에게 혹시 랩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학생이 곧바로 랩을 했어요. 선생님은 랩을 잘 몰라서 학생이 진짜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자신감이면 경기외고에서 어떤 난관이 와도 잘 헤쳐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사를 읽고 있는 그 학생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서 경기 외고를 잘 졸업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Q.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학생들과 가고 싶으신 GVT 장소가 있으신가요?**

**A.** 저는 GVT로 중국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중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중국어를 사용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중국의 발전된 모습과 더불어 중국을 정확히 알자는 의미에서 중국의 대도시 체험을 해보면 좋겠어요. 낙후된 도시에 가서 봉사하거나 중국에 있는 학교의 고등학생과의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Q. 경기외고 학생들과 수업하시면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A.** 좋은 점이 많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정말 공부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어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다 흡수하는 학업적인 역량이 있어요. 그거는 수업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엄청 큰 기쁨이에요. 또한 졸업하고 나서도 선생님에게 연락하는 학생을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인성도 훌륭하게 갖추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점은 중국어가 어려워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점. 그 점이 너무 안타깝워요. 선생님이 ‘이 학생을 끝까지 도와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쉽다기보다는 선생님 스스로에게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Q. 선생님께서 경기외고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A.** 여러분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리더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예요. 선생님은 리더란 거창한 재벌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면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리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경기외고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 양시연, 이시현, 박소윤, 장지원 기자

## 경기외고의 얼굴, 전교회장

전교회장의 준비과정, 자질 그리고 활동까지 전교회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18대 전교회장 박중현 학생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전교회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과정을 거치셨는지 그리고 준비하면서 겪으셨던 일화가 궁금합니다.

**A** 우리 학교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활용하여 전교회장 선거를 하기 때문에 파트너와의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약 등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화는, 러닝메이트와 전교회장을 준비했다 보니 어느 정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공약을 세우는 과정 혹은 공약에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으나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해결하여 공약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었던 경험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Q** 전교회장단 홍보영상을 찍거나 연설을 준비할 때 재미있는 요소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A** 확실히 전교생들에게 그 영상이나 면접 내용이 공개가 되는 거니까, 대중성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성을 어떻게 잡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대중성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재미있는 부분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Q** 전교회장단이 되기 위한 자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저는 전교회장단이 되기 위한 자질은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뚜렷한 단어가 아니라 추상적인 단어이긴 한데,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 신용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게 되고 따라서 애가 진짜 전교회장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전교회장으로 선택하였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을 이뤘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것을 준비했고 만약 내가 전교회장이 된다면 이런 것을 확실하게 실행할 것이다'라는 그 포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믿음을 얻으면 전교회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학교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세우셨던 공약과 함께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저희 학교에 삼권분립이 굉장히 정확하게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위원이랑 같이 가플리에스타라는 경기외고 대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1학기 때 진행하였던 저희의 TED연설 강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2학기 때도 그 TED강의를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면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버스킹이나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 전교회장으로서 리더십을 보이셨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포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교회장이라는 직책이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더는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거나 혹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혹은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는데, 리더로서 그러한 충돌이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포용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전교회장단이 되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요?

**A** 현재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면서 학교 생활이 굉장히 무의미해졌고 많은 축제나 행사들에 제약이 걸려서 많은 학생들이 즐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전교회장이 되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그런 행사에 대한 추진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행사와 축제를 이끌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하고 싶었습니다.

**Q** 전교회장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웠던 일이 있으신가요?

**A** 사실 전교회장이 된 것 자체가 저로서는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저희와 경쟁을 했던 후보가 굉장히 막강한 능력과 친화력, 공약을 가지고 저희와 대결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 되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인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저희가 경기외고에서 최초로 TED 강의를 실현하였을 때 솔직히 최초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보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TED강의를 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순조로운 강의가 되었기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Q** 전교회장단으로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A**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체육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중대한 행사나 결정이 있으면 학부모 위원회 분들과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총괄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 수용이 되면서 저희가 체육대회라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뿌듯했고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Q** 경기외고 전교회장으로서 경기외고를 소개해주실 수 있으세요?

**A** 우선 저는 경기외고가 '경기'라는 타이틀을 가진 만큼 경기도를 대표하는 외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 같은 관계가 형성되면서 저희는 굉장히 친숙하고 친밀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서로 배울 점도 많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래에 인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양시연, 이시현, 박소윤, 장지원 기자

## 경기외고의 행사를 책임지는 학생행정위원회



우리 학교의 행정을 맡고 있는 학생행정위원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학생행정위원회 박주영 학생을 만나 인터뷰했다. 박주영 학생은 현재 18대 학생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재정경제부라는 부서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Q.** 행정이 되기 위한 면접 과정이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A.** 먼저 면접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정 면접은 1차부터 6~7차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면접이 매일매일 일주일간 진행되는 면접이라는 점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또, 친구들과 같이 면접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 다른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 그 점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접과는 다르게 단순 질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하고 접해보지 못했던 면접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당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행정부원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자질이 있나요?

**A.** 저희는 학교의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축제 당일 또한 진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 명이 잘못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친구들에게 두 배로 일을 넘겨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실함과 책임감이 가장 먼저 따라줘야 됩니다. 또한 일처리나 문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서적인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학생과 학교의 소통의 중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도 같이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행정 각 부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행정은 지금 위원장단을 제외하고 총 7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기획정보부는 처음에 신입 위원을 뽑는 면접을 담당하고 축제와 같은 행사 때 인력을 배분하는 역할과 매주 진행되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부에서는 학교에 수요 조사를 담당하고 있고 학생 행정위원회 캠페인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부는 가플리 에스타와 뚜띠콘서트 같은 축제들을 담당하고 있고 문화체육부는 경기컵과 체육대회를 주관합니다. 여론소통부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니페이퍼 같은 소통함을 만들어서 학교와 학생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는 축제 때 쓰이는 예산을 관리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습 활동 지원부는 동아리나 진로 페어나 학술제와 같은 학습에 관한 영역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Q.**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나요?

**A.** 학생 행정위원회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학생들이 축제를 기획하기 때문에 평소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현 상황의 이슈와 유행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슈와 유행을 행정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합니다.



**Q.** 혹시 행정만의 고충이 있으신가요?

**A.** 저희 학생행정위원회는 '항상 학생의 편에 서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과 학교의 절충안을 잘 찾는 것이 행정위원회의 할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행정위원회가 진행하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때 고충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를 다 받아줄 수 없는 점에서 학교와 학생의 요구가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Q.** 행정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A.** 코로나로 인해 축제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이번 해에 체육대회라는 행사를 처음으로 크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축소된 체육대회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체육대회를 하면서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Q.** 행정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있었던 재미있었던 일화가 있으신가요?

**A.** 행정위원을 하면 '몸이 고생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많은 일을 할 때 노동요를 틀어 놓고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데 회의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피해서 몰래 본관에서 나와 학생회실로 가서 회의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Q.** 이번 가플리에스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테마인디즈니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는지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A.** 지금 18대 학생행정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7명이 각자 2~3개 정도의 의견을 낸 후 그 중 약 20개의 의견 정도를 대략 추려낸 후 그 의견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한 다음에 디즈니라는 테마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디즈니 외에도 다른 테마 후보들이 여러가지 있었는데 작년에 하지 못했던 하이틴 테마도 후보 중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코로나, 시험으로 지치고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잠시나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되어서 현실 세계를 벗어나 즐겁고 편한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결국 많은 테마 중에 디즈니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후보로는 방탈출 콘셉트나 방송국이나 방송 콘텐츠 콘셉트가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를 소개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행정위원들에게 학생행정위원회는 경기외고에 계속 남아 있게 해주는 하나의 이유이고, 힘든 만큼 저희를 성장하게 하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시연, 이시현, 박소윤, 장지원 기자

# 경기외고의 질서를 선도하는 학생사법위원회

경기외고의 사법 체계를 담당하는 학생사법위원회는 교복 검사와 평소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학생사법위원회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위원장 장소민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사법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A.** 저는 원래 법에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다른 선도부 친구들이 학생들을 선도할 때, 오히려 선생님이 개입을 하면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학생들을 선도하는 경기외고의 시스템이 흥미롭기도 했고, 제가 원래 규칙을 따르고 제정하는 활동 또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교의 질서를 더 확립하고 더 나은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어서 사법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사법 위원이 되기 위한 면접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혹시 간단히 얘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어떤 목적의 모집인지에 따라서 과정이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지원서를 기반으로 한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으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것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즉석에서, 긴장되는 상황에서 질문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같은 신속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이더라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순발력 있게 잘 처리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 대상으로도 OT를 진행했고, 법전을 배포하였기 때문에, 신입생들에게도 규칙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며 이와 함께, 사법위원의 이미지에 따른 적합성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Q. 사법위원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 따로 있을까요?**

**A.** 사법위원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 일을 하다보면 가장 친한 친구들 혹은 같은 반 친구들이 규칙을 어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친구니까 한번만 봐줘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소문이 나게 되고, 결국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봐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서,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 봐 달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상 끊임없이 다른 학생들과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당연히 사법위원회 내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문제를 대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위원회가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학생들이 억울하게 OG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사법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으신가요?**

**A.** 1학년 때, 처음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허식품과 허용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2학년 1학기 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다른 사법 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저에게 식품의 허용 여부를 물어봤었는데, 그 허용여부를 찾아보기 위해서 직접 식품의 유형까지 네이버에 찾아보면서 답변을 해주었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사법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나요?**

**A.** 1학년 때 사법 위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2학년 때 처음으로 위원장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18기 OT라는 공식적인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규칙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었고 다른 학생들의 문의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가장 뿌듯했습니다.

**Q. 사법 위원분들 만의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고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사실 저희는 학생사법위원으로서, 학생이 학생에게 OG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규칙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가끔씩 저희에게 어떤 식으로 규칙을 이행해 달라고 부탁하셔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른 학생들이 보기에는 저희 사법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서, 그 매개자의 역할을 했던 학생사법위원회가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지고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딱히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Q. 혹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그렇지만 해명할 것은 딱히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규칙에는 그것이 정해지게 된 뒷배경이 있는데, 그러한 배경을 다 잘라내고 결론만을 공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학년때 사법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그 규칙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를 최대한 친구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셔서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개자로서, 그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Q. 복장 검사를 진행하실 때, 포스가 굉장히 남다르신데, 혹시 교복검사 전에 따로 준비하는 부분이나 혹은 18기 분들에게 하는 사전교육 같은 것이 있나요?**

**A.** 복장 검사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의 교복이 조금씩 다르고, 특히 남자 교복은 캐주얼 바지와 정복 바지 두 개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정색한 표정으로 검사하려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렇게 엄숙한 분위기를 만드는 이유는, 제대로 된 복장 검사를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장 검사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엄숙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시연, 이시현, 박소윤, 장지원 기자

# 경기외고의 힙합 근본, 디타후를 만나다

디타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동아리 부원인 2학년 정민규 학생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디타후는 어떤 동아리이며, 이름은 어디서 영감을 얻으신 건가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A** 디타후는 경기외고 유일무이한 랩, 힙합 동아리입니다. DTAHWU라는 이름은 'DON'T TALK ABOUT HIPHOP WITHOUT US'의 약자로 옛날에 선배님들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Q** 올해의 공연 계획은 있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히 스포해주시길 수 있으실까요?

**A** 이번에 가플리에스타에서 저희가 공연을 할 계획인데, 18기와 17기가 모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컬까지 더해져 좀 더 멋진 공연을 만들고자 할 것인데, 어떤 노래들을 선보일지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한 개만 말씀드리자면, 단체 곡으로 <쇼미더머니 4> 때 나온 <거북선>이라는 노래를 할 예정입니다.

**Q** 18기 새로운 부원을 뽑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선발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A**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본 것은 물론 실력인데 그 외에도 '힙합'에 가장 알맞은 부원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는 옷이나 말투 등에서 좀 멋진 느낌이 있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실력을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긴 했으나, 학생들로부터 나오는 분위기도 열심히 캐치하려고 했습니다.

**Q**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 직접 가사를 써서 노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노래 가사는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A** 사실 저희가 그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가사를 빨리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영감을 얻었다 기보다는 비트에 맞춰서 그냥 제일 빠르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라임을 통해서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Q** 혹시 트랩 비트와 붐뱁 비트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A** 붐뱁 비트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근본을 추구하는 편이라 힙합의 원천인 붐뱁을 더 좋아합니다.

**Q** 혹시 디타후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일화 같은 것이 있나요?

**A** 아, 방금 한 개가 생각났는데, 저희가 17기 홍보영상을 찍기 위해 따로 홍대에 가서 녹음을 했을 때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 바람에 제가 맡은 부분만 1시간을 넘게 촬영했던 점이 제일 재미있고 웃겼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디타후에서 랩을 가장 잘 하는데 그때 유독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Q** 현재 디타후는 몇 명이 참여하는 동아리이고, 어떤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A** 현재 총 인원은 12명이고, MC를 맡은 사람은 17기 한지민, 정민규, 이준영, 윤세인, 보컬은 17기 조은수 친구, 매니저는 17기 조윤선 친구와 방유은 친구가 맡고 있습니다. 또 18기 MC에는 박정우 친구와 심지후 친구가 있고, 보컬은 18기 이주은 친구가, 그리고 매니저는 18기 김지수 친구랑 엄예은 친구가 맡고 있습니다.

**Q** 현재 쇼미더머니 시즌 10을 방송하고 있는데, 우승후보로 짐작하고 계신 래퍼나 아니면 혹시 눈여겨보았던 래퍼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사실 쇼미 10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 비오가 핫하다고 하던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지원자는 베이식이라 베이식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미 한 번 우승을 하시긴 했지만, 가장 랩다운 랩을 하는 가수인 것 같고 가사에도 제일 진정성 있는 분이신 것 같아서 베이식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디타후 홍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디타후는 멋진 선배들이 가득 차 있는 동아리이고, 멋진 랩과 감미로운 보컬로 멋진 무대를 꾸미고 싶다면, 마음껏 지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양시연, 이시현, 박소윤, 장지원 기자

## 다같이 봄을 만끽하는 경기외고의 벚꽃축제



2021년 4월의 경기외고는 다소 정적이었던 작년과 달리 다사로운 봄과 함께 18기 신입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바쁘게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4월 2일과 4월 5일 경기외고의 봄을 상징하는 벚꽃축제가 열렸다. 코로나 19 우려로 전교생은 행사 전 준비된 자가진단 키트로 음성 확인을 마친 뒤, 방역 규칙을 준수하며 행사에 임하였다. 이제 막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한 18기 학생들은 친해진 반 친구들과 만개한 벚꽃을 따라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열린 첫 행사라 그런지 1학년 학생들의 얼굴이 설렘으로 가득 차 보였다. 작년 비대면 수업으로 경기외고에서의 봄을 만끽하지 못했던 16, 17기 학생들도 안전하게 등교하여 축제에 참여했다. 반 친구들과, 동아리 친구들과, 기숙사 룸메이트들과 다양한 포즈로 개성있게 추억을 남기는 학생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봄날의 청춘이었다. 축제 중간에 진행했던 공연 동아리 '디타후'의 깜짝 버스킹은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불태웠다. 학생들은 일제히 노래를 함께 따라부르며 버스킹을 즐겼다. 17기 학생들을 위한 이기찬 선생님의 특별 이벤트도 학생들의 많은 성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나서 쌀과자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상자 가득 과자를 쌓아 놓고 학생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이는 보는 이까지 마음이 훈훈해지는 현장이었다. 점심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라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학생들은 친구들끼리의 우정을, 선생님들과의 사제시간을 돈독히 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모두가 정해진 시간을 엄수하고 선생님들의 지시를 잘 따라준 덕분에 행사를 안전하게 끝마칠 수 있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잦아들었던 경기외고의 활기를 찾아가는 이 과정이 학교생활에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며 감사줄 수 있기를 바란다.

▶ 박주은 기자

## 코로나와 비를 뚫고 진행된 경기외고의 체육대회!



2021년 5월 7일 드디어 경기외고의 체육대회가 막을 올렸다. 전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2020년도에는 실시되지 않았던 우리의 체육대회. 간만의 학교 행사다 보니 더욱 열띤 반응 속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경기외고의 체육대회는 각 과별로 1,2학년이 함께 팀이 되어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과가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중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영일과&IB로 팀이 구성되었고 종목은 축구, 피구, 농구, 발야구, 8자 줄넘기, 판 뒤집기 총 6종목이었다. 과별로 예선을 진행한 후 준결승, 결승 경기로 승자를 가리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개회식 후, 모두 운동장에 집합하여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몸풀기 운동을 하고 축구와 피구로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순탄하게 진행될 줄 알았던 체육대회에 날씨라는 변수가 생겼다. 첫 번째 축구 경기 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처음 축구, 피구 경기 후 바로 다른 과 축구, 피구 경기가 진행되어야 했지만 비로 인해 판 뒤집기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 계속 비가 내린

다면 결국에는 구기종목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늘도 가플리안들의 열정을 알아봐 준 것인지 점심시간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완전히 맑아졌다. 다행히도 점심시간 이후 일정은 축구로 시작하여 8자 줄넘기까지 모든 경기가 순탄히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점수 합산과 폐회식이 진행되었다. 영중과가 영광의 1등을 거머쥐었고 그 뒤로 일본어과가 2등, 영일과&IB가 3등, 중국어과가 4등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체육대회가 진행되게 된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의 체육대회가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 당시의 코로나 상황, 교육부 지침 등으로 인해 체육대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기외고는 지난 2020년에도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 경기외고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으며 어렵게 동의를 얻어내 체육대회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외고는 방역수칙을 훌륭히 준수해 확진자 한 명 없이 성공적으로 체육대회를 끝마칠 수 있었다. 코로나 상황 속 진행된 체육대회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체육대회를 우리 가플리안들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 박세윤 기자

## 경기외고의 수학 생각 펼치기 대회에서 수학적 교양을 기르다!



2021년 수학 생각 펼치기 대회가 5월 25일 화요일 ASG2 시간에 진행되었다. 경기외고 학생들의 다재다능함을 증명하듯 이번 대회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참가하는 만큼 대회 문제의 난이도 역시 상당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끝까지 남아 문제를 푸는 데에 집중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결과 발표를 기다리며 게시판 근처를 서성거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회 문제 출제에 참여하신 성형준 선생님께서는 출제 기준에 대해 “새로운 개념이나 문제풀이의 스킬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접근해보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 위주로 출제했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충분히 고민하고 문제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강조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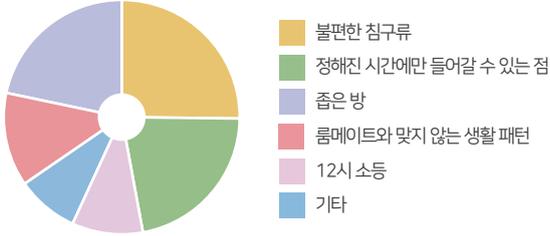
이번 대회에 참여했던 이채리 학생은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수학 실력을 기를 수 있었다고 전하였다. 또한 대회 후 시험지를 회수해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노트를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대회는 총 8문제를 푸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익숙한 유형뿐 아니라 처음 보는 유형 또한 상당수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시간은 무엇보다 보람되고 의미 있었을 것이다.

수학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대회는 수상자를 비롯하여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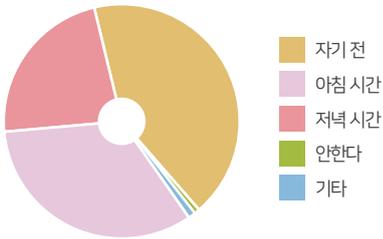
▶ 권수민 기자

## 2021년, 가플리안들의 학교생활



### 1. 기숙사 생활시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경기외고만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하는 기숙사. 설문조사를 통해 가플리안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을 알아보았다. 불편사항 1위는 12시 소등, 그 다음으로는 기숙사에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과 방이 좁다는 불편사항이 각각 2, 3위로 뒤따랐다. 4위는 룸메이트와 다른 생활패턴, 5위는 친구류가 불편하다는 점이었으며, 기타 항목에는 사감 선생님, 별레, 시설 등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었다.



### 2. 주로 사위를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만큼, 경기외고 학생들은 개인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있다. 그렇다면 가플리안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위 시간은 언제일까? 1위를 차지한 시간대는 10시 5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이어지는 잠자기 전 시간이었다. 2위는 아침시간, 3위는 저녁시간이었으며 그때마다 씻는 시간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 3. 시험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고등학생이라면 모두 공감할, 학교생활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시험'이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부족한 잠, 너무 많은 시험범위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시험 공부를 하면서 가플리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무엇일까? 1위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피로였으며, 2위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시험 범위, 3위는 2시까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었다. 기타 항목에는 성적에 대한 부담감과 정시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



### 4. 밤 자습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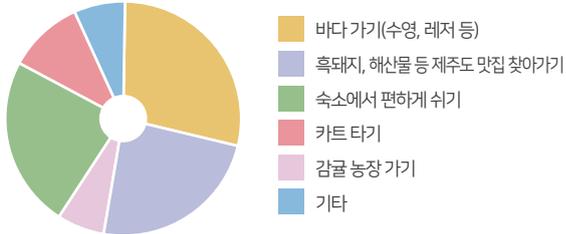
주어진 자습시간 이후에도 공부시간이 더 필요할 때, 경기외고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습을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습 방법은 침대 위 자습이었으며, 2위와 3위로는 각각 자습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캐비닛 자습을 한다는 의견이 따랐다. 4위에는 심야 자습을 한다는 기타 항목이, 5위에는 화장실 자습을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5. 학교에서 코로나로 인해 생긴 변화들 중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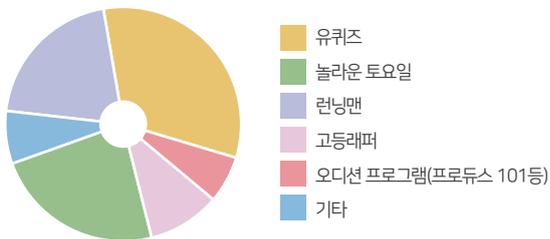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가플리안들이 학교 생활의 변화에서 느낀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불편사항은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기외고는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검사를 받은 학생들만 입소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방역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지만 여전히 매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불편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2,3위로는 하루종일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체육대회나 가플리에스타 등의 교내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된다는 점이였다.

## 여행부터 알바까지! 가플리안들의 취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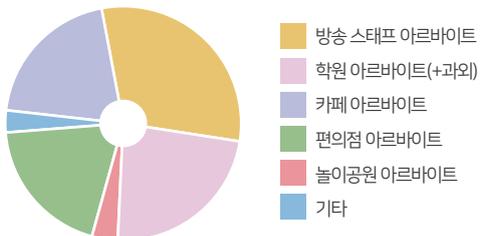
### 6. 제주도에 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연초에 계획되어 있던 학교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고등학교 생활 중 단 한 번 떠나는 GVT 만큼은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결국 GVT도 취소되고 말았다. 언젠가가 될 GVT에 대한 설렘을 안고 만약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가플리안들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1위는 바다가기, 2위는 맛있는 흑돼지, 해산물 등을 맛볼 수 있는 제주도 맛집 탐방하기, 3위는 숙소에서 편안히 쉬며 호캉스 즐기기, 4위와 5위는 각각 카트 타기, 감귤 농장 가기였다. 기타 항목에는 한라산 등반하기, 사진 찍기, 핫플레이스 찾아가기 등이 있었다.



### 7. 가장 출연해보고 싶은 예능은 무엇인가요?

일요일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장수 예능 '런닝맨'부터 일상 속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마음에 울림을 주는 '유퀴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경기외고 학생들이 가장 출연해보고 싶은 예능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1위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유퀴즈'가, 2위는 '놀라운 토요일'이, 3위와 4위는 각각 '런닝맨'과 '고등래퍼'가 차지했다. 5위로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기타 의견에는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부터, '한국인의 밥상'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 8. 가장 해 보고 싶은 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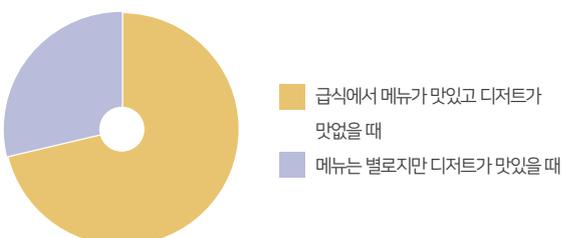
누구나 한번쯤은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 하는 모습을 상상해볼 것이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중, 경기외고 학생들은 어떤 직종에서 가장 일 해보고 싶은지 몇 가지 항목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1위는 카페 아르바이트였으며, 2위는 과외를 포함한 학원 아르바이트, 3위는 놀이공원에서의 아르바이트였다. 그 뒤를 각각 4위와 5위인 방송 스태프 아르바이트와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따랐으며, 기타에는 음식점이나 백화점에서의 아르바이트 등이 있었다.

## 극과극! 가플리안들의 밸런스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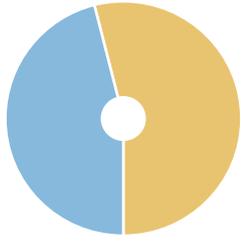
### 1. 사하라 사막에서 호떡 먹기 VS 알래스카에서 아이스크림 먹기

더운 날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나올까 아니면 추운 날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이 나올까? 사하라 사막에서 호떡 먹기와 알래스카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온지에 대한 질문에 알래스카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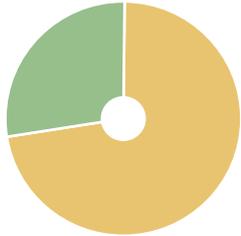
### 2. 급식에서 메뉴는 별로지만 디저트가 맛있을 때 VS 메뉴는 맛있지만 디저트가 맛있을 때

디저트가 맛있는 걸 선호하는지, 메뉴가 맛있는 걸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가플리안들은 메뉴는 맛있지만 디저트가 맛있을 때가 더 낫다고 응답하였다. 디저트가 별로일 때는 디저트만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메뉴 자체가 맛이 없으면 한 끼 든든히 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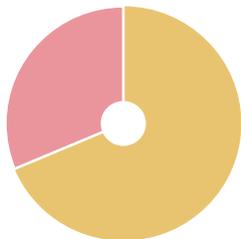
**3. 반별로 다르게 가르치시는 선생님 VS 그냥 안 알려주고 시험 내시는 선생님**

반별로 다르게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나은지, 아니면 아예 안 알려주신 걸 시험에 내시는 선생님이 나은지에 대한 질문에, 차라리 안 알려주고 시험에 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간소한 차이로 더 많았다. 하지만 이 질문은 많은 학생들이 고르기 힘들어 했던 질문으로 두 항목 중 하나만 고르기 힘들 만큼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었다.



**4. 도벽 있는 룸메 VS 매일 밤 12시에 친구 불러서 컵라면 먹는 룸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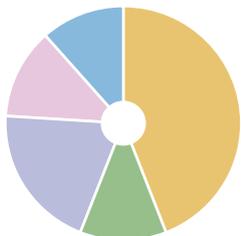
기숙사는 4명의 룸메이트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룸메이트 서로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공간이다. 도벽 있는 룸메이트와 생활 하기와 매일 밤 12시에 친구를 불러 컵라면을 먹는 룸메이트 중 어느 룸메이트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가플리안들은 차라리 친구를 불러 매일 밤 12시마다 컵라면을 먹는 룸메가 더 낫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5. 화장실 하루 못 가기 VS 매점 일주일 문 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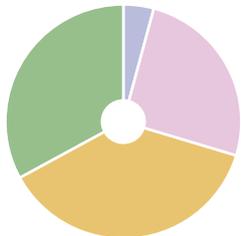
경기외고의 매점은 한가한 때 없이 항상 매점을 찾는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화장실 하루 못 가기와 매점 일주일 문 닫기 중 어느 항목이 더 나은지에 대한 질문에 압도적인 표 차이로 화장실을 못 가는 것 보다는 매점을 못 가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었다. 매점도 좋지만 화장실을 하루종일 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2021년,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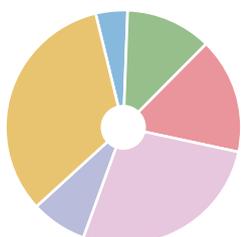
**1. 선생님은 학창 시절 때 어떤 학생이셨나요?**

학창 시절은 많은 어른들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자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절이기도 하다. 이에 선생님들께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조사를 한 결과 모범생이셨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조용한 편이었다, 분위기 메이커였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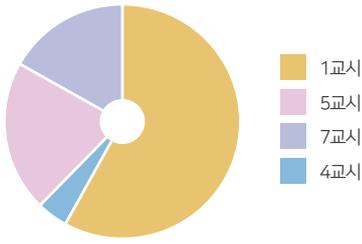
**2. 가장 돌아가시고 싶은 시절은 언제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한다. 선생님들께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현재가 좋아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그 뒤를 따랐다.



**3. 수업 중 가장 신경 쓰이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가장 신경 쓰이냐는 질문에 스탠딩 책상에서 친구들과 떠드는 학생들이 가장 신경 쓰인다고 답변하셨다. 2번째로는 반응을 하지 않고 무표정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신경 쓰인다고 답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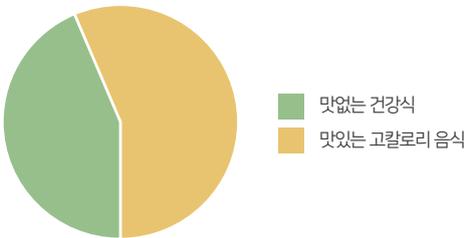
**4. 수업하기 가장 힘든 교시는 언제인가요?**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달리 가르치시는 입장으로 수업 시간 내내 설명을 해주신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일까? 이 질문에 대해 압도적으로 1교시가 가장 힘들다고 답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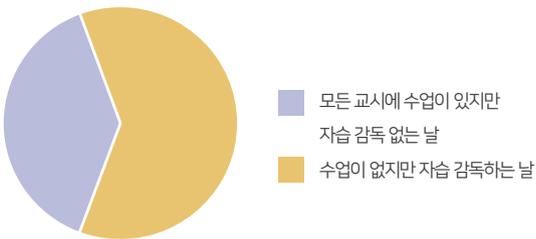
**5. 4주 동안 매일 자습 감독하기 vs 전교생 상담하기**

선생님들께서는 자습시간의 질서를 위해 자습시간 동안 감독을 하시고 학업과 학교 생활 관련 고민을 듣고 조언해주시기 위해 학생들을 상담해주시곤 하신다. 4주 동안 매일 자습 감독하기와 전교생 상담하기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질문에 근소한 차이로 전교생을 상담해주는 것이 더 나올 것이라는 답변이 더 많았다.



**6. 맛있는 고칼로리 음식 vs 맛있는 건강식**

급식시간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중 하나이다. 선생님들께 맛있는 고칼로리 음식과 맛있는 건강식 중 어느 편이 나은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맛있는 고칼로리 가 더 낫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7. 모든 교시에 수업이 있지만 자습 감독 없는 날 vs 수업이 없지만 자습 감독하는 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자습 감독 등 공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다. 모든 교시에 수업이 있지만 자습 감독이 없는 날과 수업이 없지만 자습 감독하는 날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업이 없지만 자습 감독하는 날이 더 낫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Q. 선생님들이 즐겨 시청하시는 유튜브 채널**

**A.** 유튜브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이다. 선생님들이 주로 시청하시는 유튜브 채널을 조사한 결과 언어 관련 채널, 시사 관련(경제, 주식, 정치),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클립 및 리뷰채널, 라디오, 스포츠 채널, 그리고 그 외에 수업내용에 도움이 될만한 채널, 죽음이란 무엇인가, 백종원의 요리비책, 비긴어게인, 다큐멘터리, SBS동물농장x애니멀봐, 스테이지박스 등 다양한 분야의 채널을 즐겨 보신다고 답변하셨다.

**Q. 선생님들의 인생 영화, 책, 웹툰**

**A.** 우리 모두 재밌게 봤거나 감명받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들 중 인생 작품들이 하나씩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이 뽑은 인생 작품들로는(웹툰) 일렉시드, 호랑이 형님(영화) 침몰빌, 굿윌헌팅, 라라랜드, 인생은 아름다워, 스파이더 맨, 어바웃 타임, 대부, 벤허, 로빙화, 광해: 왕이 된 남자(책) 뿌리깊은 나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긍정의 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마휘의 '사기', 경청, 담론, 천국의 열쇠-AJ크로니, 이석원 이야기 신문집 등이 있었다.

**Q.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연예인**

**A.** 연예인들은 많은 대중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곤한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좋아하고 동경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연예인은 누가 있을까?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민중, 전영록, 톰크루즈, 왕조현, GD, 강동원, 공유, 현빈, HOT, 이선희, 조용필, 윤상, 주윤발, 고 최진실, SJ, 조승우, 송윤아, 박인희 등의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답변하셨다.

**Q.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급식 메뉴**

**A.** 경기외고는 맛있고 다양한 급식이 나와 학생들이 기대하는 급식 메뉴가 다양하다. 많은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식사를 하시곤 하는데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기다리는 급식 메뉴는 무엇일까? 선생님들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콩나물 밥, 곤드레나물밥, 비빔밥, 소머리국밥, 쌀국수, 우동, 호박스프, 연팔죽, 삼계탕, 돈까스, 마늘소스 보쌈, 월남쌈, 곰탕, 닭강정 등을 좋아하신다고 답변하셨다.

▶ 김도현, 박서진, 최은성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의 원인과 대처법



현재 2020년부터 현대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전파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예상되는 원인들로는 무엇들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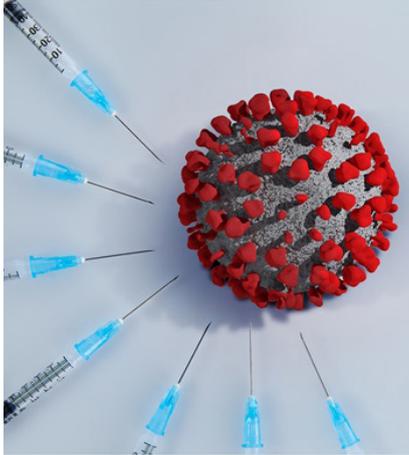
가장 유명한 가설로는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가설이다. 중국이 코로나 사건이 발생한 2020년 초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화난 수산도매시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시장에서는 박쥐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상은 큰 박쥐에서 발견되는 HKU9-1로 박쥐와 매우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로 나온 가설은 우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중국 과학자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가설이다. 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인위적으로 우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발표된 논문에는 박쥐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만들어졌고 코로나가 인체에 침투할 때 작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자연에서 나올 수 없는 형태라는 것이 인위 제작설의 명백한 증거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제학술지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또한 가설로 남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한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박쥐에게 물려 전파되었다는 가설이다. 최근 2년 전 다큐멘터리에서 우한 연구소에서 한 연구원이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박쥐를 채집하다가 박쥐가 손을 무는 영상이 발견되었다. 영상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박쥐에게 물린 이후 벌레에 물린 것처럼 여러 곳이 부풀어 있었고 조사를 통해 2012년 박쥐 배설물을 치우다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한 광부 3명과 2019년 연구원 3명이 아팠던 것을 은폐했다는 사실 또한 밝혀져 논란이 커지게 되었다.

현재, 바이러스 발생 원인은 가설밖에 없으며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코로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코로나의 주요 증상으로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증상으로는 피로, 식욕감소, 소화기 증상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증상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더라도 잠복기가 7~14일로 길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심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것은 가장 중요하며 손은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 코로나 단계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 부스터 샷, 지금 당장 필요할까?



계속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인도에서 발견된 델타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해서 계속해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출시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여 전세계에서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접종(부스터 샷)을 진행한다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부스터 샷)을 올해 4분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은 30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정부는 4분기에 ‘부스터 샷’ 접종과 함께 12세 이상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흔히 ‘부스터 샷’으로 불리는 추가 접종은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맞은 뒤 변이 바이러스의 예방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일정 시점 후에 다시 백신 접종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부스터 샷을 시행하고 있고 유럽,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부스터 샷’ 사용을 고려 중이다. 근데 정부의 추가 접종(부스터 샷) 정책 추진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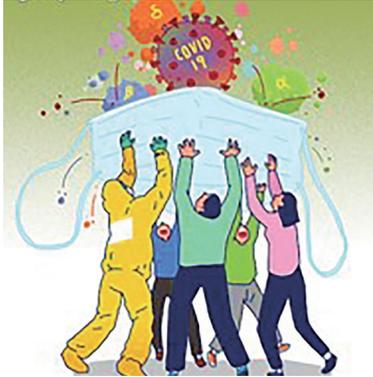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 접종 불평등 문제를 꼬집으며 저소득 국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스터 샷을 연기해달라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추가접종을 강행하는 반면 유럽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50억 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이 투여됐지만, 이 중 75%가 10개국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WHO 사무총장은 지난 8월에도 백신 접종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스터 샷 접종을 최소 9월 말까지 중단하라”라고 선진국들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WHO의 당부를 무시하고 부스터 샷을 강행했다.

유럽보건당국은 부스터 샷을 급히 맞힐 필요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약품청 역시 부스터 샷 사용을 권고하기 위해서는 전체 접종 후 보호 기간에 대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와 계속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변이로 인해서 정부는 백신 추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물론 부스터 샷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 효과를 높여 국민을 보호한다는 정책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미국 등에서 부스터 샷을 통해서 코로나19 안정된다고 한들, 저소득 국가에서 또 다른 변이가 나오면 부스터 샷을 받은 나라들은 또다시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게 된다. 현재 백신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아직 66% 정도의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저소득 국가들도 백신을 다 접종하고 난 뒤에 부스터 샷 접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델타 변이가 전염력이 높아서 빨리 백신 접종하여 델타 변이가 더는 퍼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전 세계가 기본적인 코로나19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번 정부의 정책은 조금 선부르다고 생각된다. 코로나19 백신 정책도 늦었지만 늦은 만큼 좋은 결과를 보여줬던 정부만큼 부스터 샷 사용에 대해서도 더 고민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 조규현 기자

## 코로나, 그리고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페스트 이후 가장 심오한 재앙이 지구를 장악했다. 어느 대륙 할 것 없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 사태는 한 국가의 위기대처 능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다. 바람직한 대처란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방역과 여러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국가적 손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은폐와 방치로 대처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공공 감추어 국가 내부의 상황을 가늠조차 못하는 나라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방역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방역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선진적인 방역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적은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있다. 정부는 먼저 철저한 정보공유로 확진자의 동선과 현황을 공유했다. 재난 상황은 늘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한 혼란 속 은폐는 두려움을 야기하고 더 큰 혼란을 만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늘 투명하게 확진자 수와 동선을 공유했다.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켜 더 철저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밀접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큰 감염을 막았다. 현재는 백신이 대중화 되고 수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는 큰 이슈를 낳곤 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며, 자유의 침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보건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우리는 늘 '정의'에 대한 절대적인 법칙을 찾는 데에 난항을 겪는다. 이번 이슈 역시 쉽게 결론지을 수 없는 일이며, 명확한 진리를 찾기 어렵다. 이는 곧 우리에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무거운 과제로 남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선택'이라는 기회를 부여한다. 선택에는 늘 그 책임이 따른다. 선택의 스펙트럼은 모두가 다르고, 이 안에서 명확한 선과 악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강요와 비난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맹목적인 이해와 수긍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 끝나지 않는 전쟁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서는 다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정의를 위한 깨어있는 정신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는 오랜 코로나 사태로 많이 지쳐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하고, 어디에도 '전염병'이라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윤리적인 문제까지 더해, 우리의 짐은 산더미처럼 커진 상태이다. 여기서 나는 '페스트'라는 작품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흑사병이 돌던 당시 유럽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인물들이 페스트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가치는 '연대'이다. 즉, 사람들의 결합과 상호도움,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다함께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서 진정한 '극복'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 소설에서 고난의 시기를 어떠한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마음 속 가치는 다름지언정 모두의 안위를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극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목표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

뭐든지 영원한 것은 없다. 때로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슬픈 말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준다. 이 재앙도, 비극도 분명 끝이 나고 인류는 승리할 것이다. 다만 나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제시된 여러 문제들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분열이 아닌 협동으로 같은 가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는 동일한 가치를 품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영화 <말모이>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단 열 사람의 한 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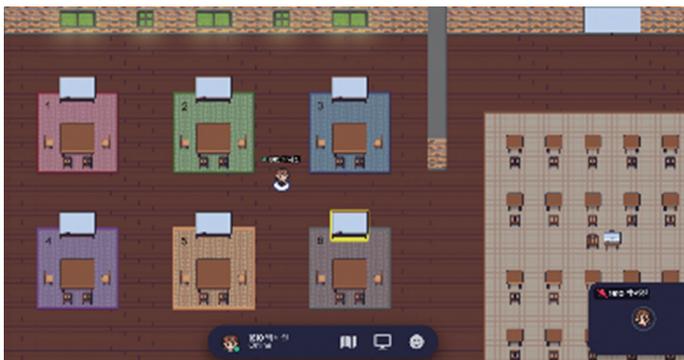
# 메타버스란? 코로나19 상황 속 메타버스의 활용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입학식과 졸업식 등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캠퍼스를 제작해 비대면 생활에서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캠퍼스라고 불리는 이 온라인 대학 안에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개성있는 모습의 아바타를 활용하여 실습이 필요한 수업, 동아리 활동, 국제 교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이 중요시 되면서 메타버스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메타버스란 '가상'이라는 의미를 지닌 '메타'와 '세계'라는 의미를 지닌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메타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ZEPETO'(이하 제페토)가 있다. 제페토는 증강현실(AR) 아바타 서비스로, 국내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은 얼굴인식과 증강현실, 3D기술을 통해 만든 자신만의 아바타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시간을 보낸다. 최근 들어, 제페토의 활용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아이돌 산업에서의 활용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코로나19로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 팬과의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페토는 블랙핑크나 ITZY 등 스타와 팬이 다양한 콘텐츠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했다. 제페토는 패션 산업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명품 브랜드 GUCCI는 다양한 가상세계 속 GUCCI 제품을 아바타로 피팅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제페토 GUCCI 빌라를 설립하여 사람들이 명품 브랜드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아바타와 제페토 속 공간을 활용하여 촬영한 일명 '제페토 드라마'도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스포츠뉴스가 제페토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운 시기에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



우리학교도 '게더타운'을 활용하여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학교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모둠 활동이나 발표에 한계가 있는 줌(ZOOM), 이지뷰 대신에 더 원활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자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글로벌홀, 기숙사, 봉암홀, 본관 등 우리학교의 건물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 구축되어 있어 그 속에서 발표수업, 모둠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나와 똑 닮은 아바타로 가상세계 속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교실을 제외한 매점이나 체육관, 기숙사 건물 등도 구현하여 직접 등교를 한 것 같은 재미를 더했다.

이처럼, 대면 생활보다 비대면 생활이 익숙해지고 있는 요즘,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 경제활동, 학업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 박서진 기자

## 비대면 교육, 과연 효과적일까?



2020년 유행한 Covid-19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EBS온라인 클래스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다가 점차 줌, 구글미트 등을 사용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진행된 비대면 교육에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한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또한 많다. 그렇다면 과연 비대면 교육은 학생들의 교육에 효과적일까?

주된 의견은 비대면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비상교육에서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정보 커뮤니티 '맘애크'을 통해 지난해 11월 한 달간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회원 400명에게 '비대면 학습'을 주제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비대면 교육을 경험해 본 92.5%의 학부모 중 비대면 학습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10.8%에 그쳤다. 그밖에 45.5%는 '보통이다', 39.5%는 '효과적이지 않다' 4.2%는 '모르겠다'고 응하였다. 비대면 학습의 최대 단점으로는 '집중력 저하'와 '사회성 결핍'이 지적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예절 교육, 사회성 교육, 공동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급식을 먹는 활동들이 모두 사회성 교육에 포함되며 이러한 교육이 어렸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때 대인 관계에 문제를 겪게 될 수 있다.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되어 사람들 간 교류에 익숙하지 않은 '코로나 세대'가 형성될 경우 후일 이들의 치유를 위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다.

비대면 교육은 과학실험, 체육과 같이 활동적인 수업에 차질을 주기도 한다.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이는 장시간 책상 앞에만 앉아 있어야 하는 비대면 교육의 부작용과 더불어 학생들의 심각한 운동량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계획된 과학실험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이 집에서 실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원래 계획된 과학 실험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과학 실험의 과정을 단지 교과서 상의 내용과 동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이처럼 비대면 교육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근거들에 의거하여 비대면 교육은 학생들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대면 교육은 학생들의 교육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한 전면 등교를 실행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교육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 박소윤 기자

## 대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배민의 성공 신화



플랫폼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먼저 '플랫폼'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것'이라는 본 뜻을 지니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연결지점 또는 연결고리'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즉 소비자와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비즈니스인 것이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인 애플 플랫폼, 숙박업소가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야놀자, 가게와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배달의 민족 등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쿠팡이라는 기업에서는 여러 제품을 판매하지만 쿠팡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물건은 없다. 쿠팡 또한 여러 업체들과 소비자들을 쉽게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인 아마존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최근 플랫폼 비즈니스 중 가장 떠오르는 사업체 중 하나인 배달의 민족은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하여 굉장히 크게 성장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배달의 민족은 2010년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배달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출범했는데, 이후 배달을 하지 않는 유명 맛집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민라이더스'와, 배달 용품 및 식자재를 유통하는 '배민상회', 반찬 및 가정식 배달 서비스 '배민찬'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갔다. 사업 확장과 함께 이용자 수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5년 초 500만 건 수준이었던 월간 주문 수는 지난달 1억건을 돌파했다.

배달의 민족이 10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한 힘은 고객 중심의 마케팅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배달의 민족은 주타켓층인 2,30대 사춘기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는 디자이너 출신이라는 강점을 살려 캐치프레이즈, 글씨체, 캐릭터 등을 활용해 젊은 층이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였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모방해 '블랙 프라이드 데이'라는 걸 만들어 장안의 치킨이 동나게 만드는가 하면, 무료 서체를 만들고 치물리에 (치킨+소물리에) 대회를 여는 등 배달의 민족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독창적인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배달의 민족이 집중한 것은 고객 기반 서비스이다. 배달의 민족은 2015년 대대적으로 '중개 수수료 0%'를 선언한다. 김봉진 대표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고객 기반을 키워야 한다"는 승부수를 내세워 6개월 만에 수수료 0%를 적용받는 바로결제(자체 플랫폼 결제)를 실시하였고 이는 주문을 85%까지 성장시키는 성과를 달성한다. 배달의 민족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배달이 안 되는 것은 없다고 할 정도로 '배달 경제'를 만들어내고, 배민의 문화를 좋아하고 광적으로 따르는 배짱이(배민을 짱 좋아하는 이들의 모임)들 같은 팬들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이제 배달 전용 로봇까지 만들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으며 배달의 민족의 성공은 앞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망이 기대되는 첫 발걸음이다.

▶ 김노현 기자

## 2021년 개최된 도쿄올림픽, 과연 성패는?

원래 2020년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로 인해 1년 연기되었다. 당시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져도 일본은 안전하다며, 그리고 확진자와 감염자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아 각국의 올림픽 취소나 연기 요청에도 꿈쩍도 안 하던 일본과 아베 총리는 캐나다, 호주,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거나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올림픽을 1년 연기하여 2021년 7월 23일 금요일에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던 과정,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수의 증가 등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폐막까지 예정대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올림픽이 과연 긍정적이기만 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 올림픽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크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루어져 우리에게 3주간 즐거움을 주었다. 선수들은 5년간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을 쏟으며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가 어느 종목에 약한지에 대한 고찰도 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을 선사하기도, 보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였다. 사실 올림픽은 주기적으로 열려야만 한다.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마냥 연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운동선수들에게 나이 하나하나가 더해진다는 것은 정말 크기 때문이다. 선수들에게 있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에이징 커브는 정말 치명적이고, 지루한 연습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능률은 떨어져만 갈 것이다. 또한 전 세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겨루는 이 대형 행사가 취소되고 계속 연기가 되는 것은 이를 관람하는 우리에게도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때문에 올림픽이 적절한 시기에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한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오랫동안 열심히 해온 선수들에게 적절한 대우와 환경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고찰해야만 한다. 이번 올림픽에 앞서 선수촌에서는 두 논란이 있었다. 첫 번째는 바로 골판지로 만든 침대이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친환경 올림픽'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정성과 견고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였고 실제로 역도 진우성 선수의 골판지 침대가 찢어졌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욕실 층고 높이었다. 운동선수들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장신 선수들은 선수촌 욕실의 낮은 층고로 인해 천장에 머리가 닿거나 고개가 꺾여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변명의 여지도 없이 무단히 노력해 온 선수들에게 정말 부당한 대우가 주어진 것이다.

선수촌만 문제가 아니었다.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에서 남자 개인전 도중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 진행에 앞서 선수들 출발선을 보트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작 소리와 함께 바다로 뛰어든 일부 선수들은 이미 수백 미터를 앞에 있었음에도 보트 때문에 출발하지 못한 선수들이 있어 재출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수질과 날씨였다. 일단 일본은 이날 온화하고 맑은 날이라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후라고 밝혔으나 실제 날씨는 30도, 습도 67%로 선수들에게 좋지 않은 조건이었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하나같이 비틀거리며 주저앉거나 그 자리에서 구토하는 모습이 포착되곤



하였는데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오다이바 해변은 이미 수질 문제에 있어서 보도된 바 있었는데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호주 폭스스포츠가 올림픽 임박인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이는 화장실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오다이바 해변은 2년 전에도 장애인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에서 정해 둔 대장균 기준치 2배가 넘는 수치가 검출되면서 취소된 바 있었고, 이후 퇴색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조치를 했지만 수개월 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번 올림픽은 혼란스러운 코로나 상황 속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어렵게 이루어진 올림픽인 만큼 그 의미 또한 매우 컸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은 분명 반성해야 할 것이다.

▶ 박세윤 기자

## 도쿄올림픽은 **진정 친환경 올림픽**인가



국제올림픽 위원회(이하 IOC)는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환경을 스포츠, 문화와 함께 올림픽 3대 정신으로 선언했다. IOC는 2000년부터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모든 도시에 반드시 환경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친환경 올림픽'을 5대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탄소 배출 최소화 비전을 가지고 탄소상쇄기금을 모금하고 환경 홍보관을 설치하고 전기차를 적극 홍보했으며 수소 전기 기반의 무공해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되어 2021년 7월 23일 개막하여 8월 8일 막을 내렸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번 올림픽의 슬로건은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 지구와 인류를 위해'(Be better, together for the planet and the people)였다. 조직위는 지속가능성 관련 다섯가지 주요 주제로 ▲기후 변화 ▲자원 관리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 ▲인권, 노동 존중 및 공정한 사업 관행 ▲협력 및 소통(참여)을 선정하면서 기후 대응과 탄소 저감이라는 글로벌 주요 아젠다를 넣었다.

기후 대응과 탄소 저감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시상식에 사용되는 메달과 시상대다.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나눠주는 약 5000개의 메달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621개 지방자치단체와 3,500여개의 우체국과 1,100개의 학교가 협력하여 재료 모으기 운동을 통해 수거된 휴대폰 약 621만대, 소형가전제품 7만 8,985톤에서 확보한 금 32kg, 은 3,500kg, 동 2,200kg을 이용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메달리스트들이 오르는 시상대는 일본 가정용 플라스틱 용기에서 수거한 재활용 원료가 활용되었다. 전국 백화점과 학교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폐기물 24.5t과 3차원(3D) 프린터를 이용해 98개의 메달 시상대가 제작되었다. 연단 앞에 장식된 료기 링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난민들을 위한 임시주택에 쓰였던 재활용 알루미늄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이 끝나면 연단에 쓰인 플라스틱은 삼푸와 세제병으로 다시 재활용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시설의 재활용이다. 경기장과 시설들은 1964년 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경기장을 포함해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했다. 총 42개의 경기장 중 24개가 기존에 지어진 시설이다.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지만 경비 절감을 위해 축구는 요코하마, 이바라키 등 인근 지역의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 경기장으로 사용되었던 경기장은 올림픽 이후에는 가동률이 저조하거나 막대한 유지 비용이 든다. 이러한 단점을 예방하고 이후 시설을 건설하고 철거하는데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기존 시설을 최대한 사용하여 에너지 낭비와 쓰레기를 최소화하였으며 비용도 절감하였다.

세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다.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프로판가스 대신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성화봉송과 성화대를 밝혔다. 올림픽 선수촌에는 후쿠시마 현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하였으며, 올림픽 기간 동안 수소차량을 조달하여 운영하였다. 수소 연료는 연소 시 가스 연료와 달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연료로 불린다.

네 번째는 골판지로 제작된 선수촌 침대이다. 2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데다 재활용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다. 그러나 많은 선수들이 불만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업계에서는 골판지 침대의 내구성이 낮지 않고, 올림픽 등 일시적인 이벤트에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된 점도 친환경 도쿄올림픽에 일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7월 23일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무관중 개최로 인해 올림픽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240만t(톤) 정도로 줄어 탄소발자국이 약 12%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올림픽을 즐기기 위해 이동하거나 외식, 오락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이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가리킨다. 주경기장 건설에 쓰인 목재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 아시아의 열대우림에서 벌목됐다. 이는 열대우림 손실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내 멸종 위기종인 오랑우탄의 서식지마저 파괴하는 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더불어 일본 민영 JNN 방송은 올림픽에서 날마다 도시락 수천개가 무작위로 폐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도쿄올림픽의 친환경 운영에 관한 비판도 적지 않지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그 동안 들인 지속가능한 친환경 운영을 위한 노력은 높이 사고자 한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올림픽을 진행할 때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도쿄올림픽에서의 노력을 바탕으로 후에 개최될 올림픽은 의심의 여지 없는 친환경 올림픽이 되었으면 한다.

▶ 양시연 기자



## 고령 건강, 이제부터 **실버 푸드**가 책임진다!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것을 말한다. UN의 최근 추계에 의하면 2025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27.3%, 스위스 23.4%, 덴마크 23.3% 등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노년층은 나이에 맞게 지켜야 할 생활습관과 식습관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저작기능이 약해지고 식도 근육이 약해져 식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고령인구를 위해 만든 음식이 실버푸드이다. 실버 푸드란 음식을 씹기가 어렵거나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을 말한다. 실버 푸드는 삼킴 장애가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연하식' 제품과 씹는 것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한 '저작식' 제품으로 나뉘어진다. 연하식은 푸딩, 젤리 등의 음료 형태로 된 식품을 말하며 저작식은 씹는 힘이 약해도 음식 본연의 맛을 잃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한국경제 보도자료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에 따라 2011년에 5,104억 원 규모였던 실버 푸드 시장이 2020년에는 1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이러한 실버푸드의 산업 성장은 해외에서도 예외없이 보여지고 있다. 일본은 현재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율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다음으로 높다. 일본은 고령 식품의 필요성을 빠르게 인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나서 실버 푸드 시장을 준비함에 따라 고령 친화 식품 산업 및 시스템이 다른 국가에 비해 잘 마련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섭식 상태를 고려하고 맛이 잘 유지된 UDF(Universal Design Food)식이 판매되고 있다. 중국은 65세 이상 노년 인구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유로모니터 등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1억 5800만 명이며 전체 인구 13억 9000만 명 중에서 11.3%를 차지한다. 코트라의 해외 시장 뉴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실버 산업 시장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중국 실버 산업 시장 규모는 5조 9,000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은 고칼슘, 고단백질 등 고영양을 강조한 실버 푸드를 빠른 속도로 출시하고 있다. 실버 산업의 확대 추세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중국에서의 실버 푸드 산업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예정이다.

유럽 또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의 경우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 또한 이러한 대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식품음료신문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기업 락탈리스사는 요양원, 병원, 약국과의 연계를 통해 영양 클리닉 성향의 식품 판매를 추진함에 따라 식품 시장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고영양의 먹기 쉽게 가공된 식품이나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이 함유된 식품 등도 인기를 얻고 있다.

## 삼성전자, 겨울은 오고 있나?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Memory, Winter is coming)’ 미국의 유명 투자 은행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의 제목이다. 모건 스탠리는 8월 11일 투자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을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각각 8.3%와 48.7% 내리며 반도체가 주산업인 한국의 기술 산업 전망 역시 ‘중립’(in-line)에서 ‘주의’(caution)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홍콩 증권사 CLSA는 올해 4분기부터 이어질 반도체 수요 부진을 예상하며 목표주가를 낮췄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보고서 발표 이후 81,500원에서 72,700원으로 8% 가까이 하락하였다. 삼성전자의 하락세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의 영향이 컸다. 한때 55.7%였던 외국인 주주 비율은 5일부터 24일까지 7조 규모의 순매도가 이뤄지면서 51.7%까지 떨어졌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는 모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냈다. 12일 1조 7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순매도를 국내 투자자들은 1조 6000억원의 순매수로 맞섰다.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총수 부재에 따른 불안감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24일 3년간 240조 투자 계획 발표로 인해 주가가 2,000원가량 상승했다. 2주간의 하락을 복구하기에는 부족했지만 회복과 성장을 위한 청신호를 쏘아 올리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삼성과 모건 스탠리와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17년 11월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가격 하락을 예상한 리포트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낮췄고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은 18조가 감소했고, 하루만에 5% 하락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 보고서에 대해 너무 큰 우려가 반영되었다며 낙관적 태도를 유지했고, 이번에도 수요가 아직 견고하다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분기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지만, 라이벌 업체인 TSMC와 인텔이 신기술 개발을 선언하며 입지를 다져가는 가운데 삼성이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겨울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기에, 삼성전자가 총수의 복귀와 함께 공격적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코스피도 내려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국민 주식이라 불리는 삼성전자이다. 대기업은 정경유착과 독점의 문제를 낳지만, 대규모 고용이 가능해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국가 경쟁력 중 하나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번 출시한 플래그십 제품인 갤럭시 Z폴립과 Z폴드와 호평을 받으며 성과를 낸 만큼 어떻게 극복해내고 성장할 것인지 기대가 된다.

▶ 오승환 기자

## 일본인의 죽음 준비, '종활(終活)'



종활(終活, 슈카쓰)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 활동을 뜻하는 일본 사회의 신조어다. 보통 일본 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공채 시기에 맞춰 취직활동(就職活動)에 노력하는 것을 슈카쓰(就活)라고 줄여 부르는 것에 빗댄 것으로 발음까지 같다.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기업 면접을 위해 뛰어다니는 것처럼 죽음이 머지않은 시니어도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에서 종활이란 단어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유명 매체인 주간 아사히(週刊朝日)에서 이에 관한 연재가 진행되면서 일본인들 입에서 종활이란 단어가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유력 출판사가 선정하는 '신조어·유행어 대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대중화가 됐다.

일본에서의 종활은 단순한 장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미리 내 삶을 정리하는 대표적 아이콘인 '엔딩노트'의 작성에서부터, 이달 국내에서도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도 연관이 있는 연명의료 혹은 존엄사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 다양한 종활 방식

현재 일본에서는 종활과 관련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다양한 새로운 방안들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의 생전장(生前葬)이 그 중 하나이다. 사실 일본 사회에서 생전장은 최근에 생긴 문화가 아니다.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만담가나 군인이, 현대에는 연예인 등이 죽기 전 지인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로 활용하는 행사를 가져왔는데 이를 생전장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활동의 종료를 알리는 수단인 셈이다.

2017년에는 전직 프로레슬러이자 사업가인 안토니오 이노키(アントニオ猪木)가 자신이 선수로 활약했던 료고쿠 경기장에서 생전장을 치렀다.

최근 종활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서비스 중 하나는 바로 우주장(宇宙葬) 서비스다. 미국과 일본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일종의 상조상품으로 상업용 로켓을 이용해 고인을 화장한 골분을 대기권 밖까지 이동시켜주는 방식이다. 화장한 유해 모두를 하늘 위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 가로·세로·높이가 모두 1cm 정도의 작은 캡슐에 유골의 일부를 담는다. 무게로 따지면 1g 남짓 된다. 다른 신청자들과 함께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대기권 밖에 도달하면, 위성궤도에 캡슐이 뿌려진다. 캡슐은 궤도를 따라 지구 주변을 돌게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중력에 이끌려 대기권으로 추락해 재로 변한다. 우주 쓰레기처럼 대기권 밖을 떠돌거나 위성 등 다른 시설에 방해가 될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는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 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

### 종활의 등장 배경

이러한 혁신적인 장례 방식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구조적 문제점들이 작용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 일본의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종활' 관련 책의 대부분은 타자와의 관계성을 끊는 시점에서 쓰고 있다. 사후에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 생각하고 책임진다는 명목을 지닌 종활론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준다. 우리는 혼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서 성장할 수는 없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타자의 신세를 지고 있다. 오늘날에 회자되는 '종활론'은 사회나 타자와는 아무런 유대가 없는 자기폐쇄적인 신변정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기쁨도 없고 타자에게도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종말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선 특히 일본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현재 고령자(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1%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이다. 하지만 고령자가 되어서도 생활이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그들 대부분이 '과거로부터의 자연과 혈연이 붕괴되고, 격차사회의 진행에 따른 빈곤층의 확대' 속에서 생활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연사(無緣死), 고독사(孤獨死)의 중심에 놓이는 것이 고령자이다. 고령자는 무연사, 고독사와 직결되는 경제적 파탄으로도 불안에 떠다. 연금생활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붕괴될 수 있다. 건강이 악화된 고령자가 자택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살던 곳에서 쫓겨나 병원이나 노인시설을 전전하면서 죽을 곳을 찾아 표류하는 '노인표류사회'가 현실의 일본의 모습이기도 하다. 또한 노인의 대부분은 정년 후의 삶의 방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자택에 틀어박혀 있다. 일

본에서는 2014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3천만명을 넘었다. 이 무렵부터 고령자가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을 배경으로, 죽음과 대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총괄하기 위한 준비활동인 '종말'이 사회적 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종말에 대해서 일본 철학자 오오하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준비, 즉 종말은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는 배려나 확립된 개인의 자각 혹은 현대사회에서 유행하는 '자기책임' 등과 같은 사회적·시대적 요청에 상응하는 일견 바람직한 경향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고령자에게 있어서는 정신에너지를 빼앗고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닐까? 죽음에 다가가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노인이라고는 하지만, 죽음의 준비 같은 것은 하루 이틀에 짚싸게 끝내고, 남은 많은 날들을 보다 잘 살기 위해서 삶의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에서 죽음을 분리시키고 죽음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또한 '기업사회'가 낳은 인간의 고립화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전후(戰後) 일본은 '어디까지나 회사가 중심인 '회사사회', '기업사회'를 형성해 오으로써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높고, '기업의 이익에 헌신하며' '회사가 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회사인간이 양산되어 왔다. 회사에 대한 과잉의존이 지역사회에서의 시민들 사이의 관계만들기를 저해하고, 일본인을 시민으로 자립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년 후의 인간이 살아야 할 상호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가 실질적으로 거의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초래한 회사주의는 실은 좋지 않은 개인주의가 기반이 되고 있다. 또 그 연원은 '무사문화'에 있다. 일본이 메이지시기에 서구화가 가능했던 것은 이와 같은 개인주의와도 관계되어 있다. 일본에서의 개인주의에서는 '무사문화에 의해 서로가 냉담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연대감은 희박하고, 좀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며, 고독하기 때문에 '과도한 군중심리'가 나와서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이 회사사회를 만들어 내는 토양이 되고 있다. 그 결과 회사정년에 의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면, 유일한 가치기준의 기반인 회사로부터 추방됨으로써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적 사자(死者)가 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인의 이러한 종말 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말 따위 그만두세요(終活なんておやめなさい)'의 저자이자 불교 학자인 히로 사치야(ひろさちや)가 대표적이다. 600권 이상의 저서를 집필하며 일본 불교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그는 이 저서를 통해 "종말은 사후를 위한 불필요한 준비에 불과하며 지금 즐거운 인생을 사는 편이 낫다"고 말하면서 "상속 등 사후에 벌어질 일들 역시 남아 있는 유족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철학자 오오하시의 노인을 자기책임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현실의 근간에 있는 서양 근대의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동아시아의 토착 사상과 문화를 축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근대(토착적 근대)의 제기, 그것의 실천자로 노년자(老年者)를 위치시키는 노년철학을 전개한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사회 속 노인들의 책임만을 강조하며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돌파구적인 해결책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할 것이다.

▶ 이시현 기자

# 언론중재법, 가짜뉴스의 종말인가 민주주의의 후퇴인가

돌이켜 보건대 역대 정부는 진보든 보수든 정권을 잡았다하면 언론부터 길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독재시절 유신 헌법이란 미명 하에 언론을 사사건건 감시했다. 당시는 신문은 물론 잡지에 대해서도 사전검열제도를 뒤 모든 원고를 철저히 사전에 체크했다. 이에 반발한 기자들이 1974년 '동아투위'를 발족했다. '동아투위'란 정부가 동아일보를 검열하여 기사를 통제하다가 동아일보가 정부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니 광고를 제한해 신문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해 해직기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투쟁위원회이다. 투쟁위원회가 만들어지고도 박정희 시해 사건 때까지 해결의 기미가 없었다. 이때 동아일보는 광고란을 비워 백지로 발간하며 저항을 했다.

이어서 전두환 정권 역시 언론통제의 일환으로 언론통폐합을 단행하면서 신문보다는 방송에 주안점을 뒤 방송언론통폐합을 단행했다. 그 대표적인 조치로 TBCT-V를 KBS2TV로, 동아방송 라디오를 KBS2라디오로, 전국 10개 도시에 산재한 지방민영방송을 모두 MBC(당시 5.16장학회 소속됨)로 흡수시키는 단행을 하고 CBS는 원래의 취지인 종교방송만 하고 뉴스보도를 일절 못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KBS-TV와 MBC-TV에서 저녁9시 뉴스시간에 전두환의 일거수일투족을 헤드라인 뉴스로 내보내는 이른바 "전땡"을 방송했다.

이후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 때 비로소 언론의 자유가 찾아온 듯한 가운데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더이상의 시도는 없었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등에서 언론자유는 붓물 터지듯 번져 진보성향의 한겨레신문과 세계일보의 창간과 정부발행의 서울신문을 비롯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진보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진보신문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수적으로 우세한 진보성향의 언론이 주도권을 잡아가자 측근인 최시중을 내세워 방송통신위원회를 발족시켜 보수성향의 신문사 "조중동"에 대해서 종편방송사(TV조선, JTBC, 채널A) 인허가를 일거에 내줘 신문에 빼앗긴 보수성향의 시청자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진보의 반격이 나타나면서 그 일환으로 언론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먼저 방송 장악을 위해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을 지낸 정연주 전KBS사장과 민연련 출신의 친정부 인사들을 방통위 이사로 배치해 노골적으로 친여 성향을 나타낼 전망이다. 정권비판 방송에 대해 재갈을 물릴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언론중재법을 국회에 상정한 이면에는 문재인 정권이 서두른 이유로 지난해 조국사건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드루킹 여론조작이 현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일사천리로 진행할 태세다. 나아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 편이 아닌 보수 언론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심사다. 그 가운데 TV조선과 채널A는 눈엣가시로 이들의 보도에 대해 철저히 응징을 할 분위기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言論仲裁—被害救濟等—關—法律 ]을 줄여서 언론중재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법이다.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내용은 이렇다.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보도로 판명 되어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시간과 분량, 크기에서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21년 7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8월 30일 국회 본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국민의 힘이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처리는 9월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이 언론중재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의 종말로 보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가짜뉴스로 인해서 고생을 한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언론을 악용해왔던 기자들이 더 이상 허위보도를 하지 못 하게 되므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중재법을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보며, 언론중재법을 시행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곧 국민의 알 권리를 옥죄는 것뿐이라며 문제를 삼고 있다. 또한 문제는 유튜브(인터넷)라며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 상에서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으며 이들을 규제했을 때 정권교체시 자기가 쓴 화살이 자기를 겨누는 영뚱한 법안이 될 소지가 있기에 유튜버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보수 유튜버보다 진보 유튜버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모른 척 넘어가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과연 가짜뉴스의 종말일까 아니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 최근 '언론 중재법' 제정을 두고 정가는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이 극심하게 일고 있다. 이 법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자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법조문에 이러한 우려, 즉,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한편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사회의 평화를 교란하는 거짓 정보의 생산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법은 그것이 미치는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강력한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법은 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는 방어자적 역할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장지원 기자



## 언론은 왜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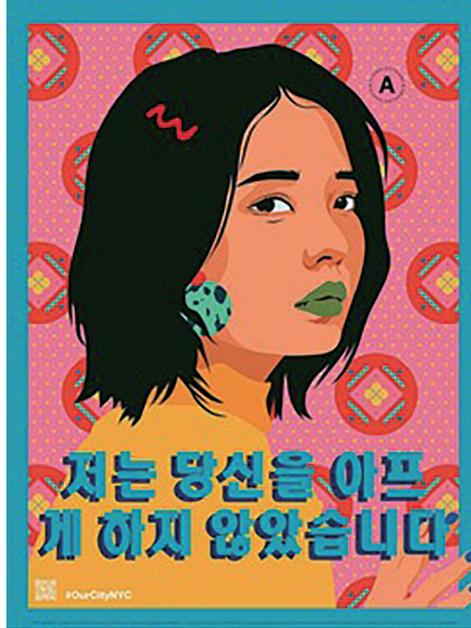
‘언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보통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언론은 그 이름만으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버리지 못한다. 처참하도록 낮은 언론의 신뢰도만 보아도 우리 국민들에게 언론이 어떠한 이미지로 비춰지는지 알 수 있다. 우리 언론은 과거 독재정권과 검열에 맞서 자유를 위해 싸웠다. 언론의 자유가 곧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여기며 몇몇 기자들은 여러 민주화인사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삶을 언론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바쳤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자유가 이제는 부작용을 낳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에 나는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언론의 힘은 막중하다. 이는 언어가 가진 특징과도 연관 지을 수 있는데, 언론의 영향력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언어가 가진 그 막강한 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언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언어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말’이 지닌 놀라운 영향력을 잘 묘사하는 속담이다. 옛 사람들도 말이 그 자체로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여러 감정과 의사를 전달한다. 우리는 사람의 기분을 표정을 통해 주로 확인하지만, 표정을 볼 수 없는 전화나 온라인상에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어투, 목소리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말투, 단어의 선택, 문장의 길이, 심지어는 글씨체를 통해서도 글쓴이가 어떠한 감정을 갖고 이 글을 썼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언어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듣거나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 이 말은 즉, 언어를 교묘하게 사용한다면, 언론은 평범한 사람의 하루를 대역죄인의 하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언어를 통해 기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중들을 선동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언론의 공개적인 성격과, 뉴미디어의 맹목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언론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몇몇 언론은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자유’라는 권리에는 ‘의무’라는 책임이 따른다. 대중들이 그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들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닌 ‘기업’으로 전략해 버렸다. 기업의 첫 번째 목표는 ‘이윤추구’이다. 현재 언론은 기업들과 다르지 않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시 되는 가치는 ‘정의’가 아닌 ‘이윤’이다. 그들은 ‘언론’이 아닌 ‘기업’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중들을 이용한다. 자극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편향된 기사를 쓰고 한다. 뉴미디어가 활성화되며 이러한 무차별적인 기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뉴미디어의 활성화로 인해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감은 떨어진 반면, 그 글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은 증폭되었다.

최근에는 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이 따르고, 이러한 책임을 무시한 기업은 사회적인 비판을 받는다. 하물며 언론은 어떻겠는가. 사회적 책임의 선봉에서 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대중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이 책임을 누구보다 강하게 부정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언론은 타 권력과 결합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도 합당한 보수와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언론의 자유는 우리 선조들의 희생에 빛을 진다. 힘들고 어렵게 얻은 자유인 만큼, 그 자유를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Stop Asian Hate,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021년 현재, 상상도 못할 정도의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는 여전히 많은 희생자를 낳으며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Black Lives Matter 캠페인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현재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Stop Asian Hate 차별 반대 캠페인은 흑인 차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지만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Center for the Study of Hate and Extremism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1년 5월 기준 2020년 대비 미국의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164%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Stop AAPI Hate에 의하면 2021년 4월에서 6월 사이에만 2,478건의 아시아-태평양계 미국 주민에 대한 증오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2021년 애틀랜타 스파 충격 사건은 전세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2021년 3월 16일 애틀랜타에서 일어난 이 충격 사건으로 인해 총 여덟 명의 사망자와 중상자 한 명이 희생되었다. 특히 사상자 중 6명이 아시아인 여성이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 4명은 한인으로 밝혀져 한국에서도 해외의 아시아인 혐오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에 아시아인 혐오가 급격하게 증가한 까닭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의 책임이라는 발언을 하여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발언이 아시아계 미국인, 특히 중국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실제로 Stop AAPI Hate는 중국인들이 43.5%로 아시아 혐오 관련 범죄를 가장 많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인은 16.8%로 아시아인들 중 두번째로 가장 많은 범죄 대상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부 수준에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여 이 문제에 대해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애틀랜타 충격 사건의 경우에도 정황상 아시아인을 노린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높고, 사건 당시 목격자가 그가 중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경찰 보고에서는 증오범죄가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이 범인은 그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을 겪고 있었을 뿐이라는 발언을 하여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범죄의 동기가 인종과 관련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와 별개로 경찰이 가해자에게 살해 동기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여파를 불러 일으켰다. 미 주류 언론 역시 아시아인, 특히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백인인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를 옹호할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Stop Asian Hate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오 범죄에 노출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히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아시아인 차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향이 적다는 것이다. 당장 애틀랜타 총기 난사 사건만 보더라도 이에 대해 무지한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아시아인 차별처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문제의 경우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대응마저 미흡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른 차별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나아질 수 없다. 자신이 하는 발언이 차별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지금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 권수민 기자

# 미국-사우디 관계의 악화

##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미국에 원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시에 미국의 든든한 동맹이었다. 사우디는 1932년 통합 왕국을 성립한 이후, 1941년 미국 자본과 함께 석유를 개발하며 미국과의 거래를 시작했다. 사우디는 미국에 원유를 주고 미국은 자신의 안보 우산 아래 사우디를 비호한다. 이러한 관계는 60년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2000년대에 몇가지 이슈들과 미군의 아프간 철수로 인한 탈레반 정권이 집권하게 되었다. 따라서 안보가 흔들리며 미국과 사우디 사이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2001년 9월11일,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상징이었던, 세계 무역 센터가 무너졌다. 19명의 테러범들은 미국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것은 19명 중 15명이 우방국,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라는 것 이었다.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 사우디는 역사적인 수준의 금액을 로비에 이용하며 어찌어찌 넘어갔지만, 둘의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둘의 동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어느 날 왕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던 언론인, '까슈끄지'가 터키 주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실종되었고 주검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 국가정보국에서 공개한 기밀 문서의 일부분에서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까슈끄지의 생포 및 살해 작전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미국은 묵인했다. 혹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였을 때 부시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하는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수호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우디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세우며 상당한 국제 정치적 스트레스를 감수하게 되었으며, 사우디 왕실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미국인들에게 심어졌다. 이러던 와중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였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요즘 들어 갑자기 시들해진 것은 물론 아니다. 프리먼 전 대사로 "양국 관계는 오랫동안 악화 일로였고,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기 훨씬 전에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 이전에 이미 양국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외교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했을 때부터 양국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사우디는, 미국이 아랍 지역에서만은 억압적이지만 안정적으로 국내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정권을 계속 지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면서 무산됐다. 2011년 봄 이른바 '아랍의 봄'이 아랍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미국은 사우디의 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이집트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불화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최근 미국-이란 간 관계 개선을 계기로 사우디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슬람 수니파인 사우디는 미국과 손잡고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을 견제해왔다. 미국과 사우디의 '이란 봉쇄전략'은, 2006년 이후 핵 개발 의혹이라는 명분으로 유엔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이란 경제제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95년부터 이란에 대해 각종 경제제재를 취해온 터였다. 하지만 2013년 3월 개시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지난해 7월 타결되면서 사우디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사우디는 이란과 핵 협상에 나선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다. 실제로 사우디 고위 관리들은 워싱턴을 방문할 때마다 '동맹국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런 와중에 미국-사우디 관계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새해 벽두 사우디가 강행한 시아파 성직자 처형이다. 문제의 성직자는 사우디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 미국은 성직자를 처형할 경우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사우디는 미국의 경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렸다. 처형 소식에 이란의 성난 군중이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을 방화하자 사우디는 즉각 이란과 국교 단절 조치를 단행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은 이례적으로 이란은 물론 사우디에도 자제를 촉구했다. 이 같은 미국의 중립적 태도는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특히 최근 이란 측에 미국 해군 10명이 나포되는 사태가 터지기도 했다.

다만 미국-사우디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양국은 석유 이외에도 시리아 내전, 테러리즘, 중동 평화 등 안보적 측면에서 상대국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실례가 <뉴욕 타임스>를 통해 폭로된 미국 중앙정보국과 사우디 간의 오랜 유착 관계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 아래 사우디와 손잡고 시리아 알카사드 정권에 맞서 싸우는 반군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런 협력관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우디는 반군에 군수물자와 자금을 대고, CIA가 훈련을 맡는 역할 분담 방식이다. 사우디가 지금껏 시리아 반군의 무장과 훈련을 위해 지불한 액수는 수십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처럼 양측의 협력관계는 뿌리가 깊다. 사우디는 지난 1980년대 초에도 반군에게 CIA의 지원 아래 320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명훈, 조용재

## 낮설지 않은 미얀마의 싸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 종이에 그려진 세 손가락 경례는 독재에 저항한다는 뜻이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다. 쿠데타의 배경에는 2020년 미얀마 총선이 있었다. 미얀마의 독립운동가 아웅 산의 딸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의 선거 압승에 군부가 불만을 갖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아웅 산 수치를 체포하며 시작된 쿠데타는 하루 만에 군부에 전권이 이양되었고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며 군부에 정권이 넘겨졌다.

사실 미얀마의 쿠데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48년 영국에게서 독립하며 연방제 정부가 수립된 미얀마였지만, 1962년 네 윈에 의해 군사반란이 일어났고 군부에 의한 1당 독재 국가가 세워졌다. 계속되는 억압에 못 이겨 1988년 8888 항쟁이라 불리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지만, 민주 정부가 세워지기는커녕 더욱 더 억압적으로 변하였다. 그러던 2007년 민주화 시위를 기점으로 자유선거가 치러졌지만, 군부의 통합단결발전당이 부정선거 논란속에서 정권을 유지했다. 그리고 2015년 드디어 국민민주연맹의 승리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회의 의석 25%는 군부가 임명할 수 있다는 헌법이 존재했고, 민주국가로서 필요로 하는 문민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권한이 아직 군부에 존재했기 때문에 쉽게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

미얀마 국민들은 쿠데타에 반발하여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속에서도 거리에 나와 맞서 싸웠다. 하지만 자유를 외치던 시민들은 군부의 잔혹한 억압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했고, 무장까지 하여 저항했지만, 군부와의 힘의 격차 때문에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권 탈환에는 실패하였다.

미얀마의 과거와 현재는 우리에게 낮설지만은 않다. 우리 역시 긴 시간동안 군부의 독재를 받았고, 이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많은 희생을 낳은 적이 있었다. 우리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세대가 겪었을 일이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역사책이나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일을 미얀마 국민들은 지금 겪고 있다. 도저히 문명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행위를 미얀마 군부는 저지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규탄 받고 있지만, 그들은 권력을 위해 멈추지 않고 있으며 미얀마 민중들의 싸움 역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태국과 방글라데시 사이에 위치한 미얀마는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또한 한때 식민 지배를 받았고 2차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쟁취하였지만, 몇 십년동안 군부에 의해 독재를 받았다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한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들의 저항정신이 언젠가는 꿈을 이룰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 오승환 기자

## 중국의 게임, 연예계 규제 ... 제2의 문화대혁명



최근 중국이 연예계 검열 및 통제 강화 정책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검열과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혀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8월부터 중국 연예계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8월 초에 웨이보에서 여러 팬클럽 계정들이 대대적으로 검열되어 정지를 당하거나 삭제

제를 당했다. 웨이보에서는 이에 대해 “깨끗한 팬덤문화 확립”을 이유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파로 연예인 관련 영상 수백만개가 강제로 삭제되었다. 여러 기획사들과 연예인들은 “깨끗한 인터넷 문화”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9월, 중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광전총국은 팬들의 모금 활동 규제, 연예인 거액의 출연료 금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금지 등 정풍운동의 연예계 검열 및 통제 강화 정책에 밝혔다. 광전총국은 연예계 검열 및 통제 강화 정책을 밝히며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팬들의 모금 활동을 일으키며 과도한 모금을 야기하기에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한국의 연예계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줄 영향은 한한령으로 인한 영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의 연예계 산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자국 내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콘텐츠 또는 한국인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도록 명한 한류 금지령, 한한령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이번 중국의 규제로 한국의 연예계 산업이 위축되고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반대로 중국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과 한국은 이미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과거에는 한국 연예계 산업을 소비하는 주요 층이 중국이었기에 중국의 제재 하나하나가 큰 악영향을 미쳤었지만 현재 한류는 중국을 넘어서 전세계에서 인기를 받고 있기에 과거와는 다르다는 입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 연예계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시작으로 많은 가수, 배우, 탤런트들이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중국은 계속해서 많은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게임 산업에도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밝혀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 금, 토, 일 오후 8~9시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중독 현상으로 인해서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그리고 접속시간에도 평일에는 90분, 주말에는 3시간이라는 규제를 뒀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책을 통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한국에서도 규제가 있지만 부모님 계정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에 보여주기 식 정책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계정을 만들고 사용하면 되지만 중국의 상황은 다르다. 중국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개인인증 방식을 안면 인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 인증은 계정을 만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닌 게임을 접속할 때마다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한국의 경우처럼 쉽지 않다.

이번 규제를 통해서 중국 e스포츠 시장에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e스포츠 선수 대부분은 10대에 커리어를 시작하고 현재 중국의 선수들도 대부분 10대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를 통해서 중국의 10대 e스포츠 선수가 연습할 길이 막혔기에 많은 e스포츠 업체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중이다. 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 업계에도 빨간 신호가 켜졌다. 중국의 이러한 규제로 인해 세계 게임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조규현 기자

## 이상

2학년 정주용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지는 이 발걸음의 무게  
내딛는 한 걸음이 곧 고통이라

어려운 삶 어려운 길  
복잡하고도 두려운 마음이  
이 밤에 무게를 더한다.

무거운 글씨엔 그 가치가 있을까  
무거운 삶에는 그 의미가 있을까

사뭇 다른 자화상의 모습  
그리고 그리던 모습을 애써 감추고  
미완성된, 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를 또 불러보리라

그리고 그를 또 이해라리라  
그때가 오면, 그를 또 환영하리라